"K-명상 개발…명상 전법으로 불교 중흥"

호남 지역 포교사단, 진우 스님 초청 포살법회

7월 8일 담양 용흥사서 봉행
진우스님, 포교사들 수행 강조
"명상, 육바라밀 실천 나서야"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7월 8일 봉행된 호남 지역 포교사단 합동 하안거 포살법회에서 법문을 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호남지역 포교사들의 포살법회에 참석해 명상을 통한 포교의 중요성과 포교사의 개개인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강윤구)과 전북지역단(단장 김용수)은 7월 8일 전남 담양 용흥사(주지 덕유)에서 '불기 2567년 하안거 포살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포살법회에서 증명법사로 나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포교사들의 수행을 독려했다.

"포교일선에 있는 포교사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노고를 치하한 진우 스님은 "1700년 한국불교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주도해왔고, 한민족의 정신문명을 이끌어왔다"면서 "하지만 1980~1990년대를 지나면서 불교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자비와 상생, 호국불교 등 지금까지의 불교 정신이 쇠퇴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스님은 "한국 사회가 물질문명은 발전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적으로 잘사는 사회가 됐지만, 지금도 괴로움과 고통, 갈등이 산재해 있다"면서 "당장 빠르게 물질문명을 발전시켰던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 국가는 명상이 대세가 된지 오래다. 화합과 자비정신을 갖고 있는 불교가 이 문제에 대안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K-명상'을 한국불교의 전법 포교 기치로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우 스님은 포교사들에게 부단한 수행정진을 독려했다.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은 크게 3가지 연기법, 인과법, 중도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포교사들이 명확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이것을 토대로 명상을 해야 한다"면서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분별심을 없애 육바라밀을 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는 광주전남과 전북 포교사들이 6월 3일 순천 송광사에서 진행한 하안거 결제 이후 포교사의 수행을 점검하고 남은 안거기간의 정진을 다짐하는 의미로 마련됐다.

강윤구 광주전남지역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교의 취약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총무원장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통해 새로운 마음으로 호남불교의 중흥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수 전북지역단장도 "우리는 보현보살 행을 실천하는 행자이다. 앞으로 더욱 불교를 포교하는데 매진하자"고 인사말을 전했다.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참여한 김영석 포교사단장도 축사를 통해 "두 지역단의 오늘 이 자리는 두 지역단 활동의 성과를 맺는 자리"라고 강조하며, "종단을 외호하고 전법활동을 하고 있는 포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포교에 매진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포살법회에서 포교사들은 〈범망경 보살계본〉 '사십팔경계'를 합송하며, 포살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포교부장 선업 스님, 용흥사 주지 덕유 스님, 국제포교사회 대표 정혜 스님을 비롯해 김영석 포교사단장, 강윤구 광주전남지역단장, 김용수 전북지역단장 등 200여 명의 포교사들이 참여했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과 전북지역단은 10월 27일 금산사에서 세 번째 포살법회를 개최한다.

전국비구니회, 제14차 전국지회장회의

7월 12일 전북지회 주관으로 본각스님 등 15곳 지회장 참석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 제14차 전국지회장회가 전북지회 주관으로 고창 선운사에서 개최됐다.〈사진〉

7월12일 선운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린 지회장회의는 회장 본각 스님과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 전북지회장 정혜 스님(마하사 주지) 등 전국에서 15명의 지회장스님들과 전북지회스님들이 참석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인사말에서 "지난 6월 개최된 샤카디타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고 마음을 모아주신 지회장스님들께 감사드린다" 며 "비구니 승가회가 여법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은 인사말에서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기대와 격려를 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샤카디타 세계대회에 동참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동참자 스님들은 이구동성으로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하고 많은 감동을 줬다고 자평했다.

이와 함께 차기 지회장회의 개최지는 제주지회 주관으로 9월 4~6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 불탑사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최근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 정혜사에 비구니 스님들의 마음을 모아 후원금을 전달키로 했다.

또한 참석한 스님들은 12대 비구니지회에 대한 10개 문항에 대한 질문지에 답변을 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공유하기로 했다.

전북지회장 정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지회장회의에 참석하면서 본각 스님과 상덕 스님을 비롯한 지회장 스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며 "호남불교가 교세가 약세인 만큼, 지역 스님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전국 지회장스님들이 호남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은 회향사를 통해 "정성이 담긴 공양과 선물을 준비해 주신 전북지회 스님들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불교어청련 7월12일 장학금 전달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대표 동천, 이하 어청련)은 7월 12일 강진 시방사(주지 성묵)에서 '2023 청소년 꿈키움 장학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남 강진군 신기마을 4가구 11명 학생에게 장학금 22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전달식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 시방사 주지 성묵 스님, 어청련 이사 소운 스님(관음사 주지), 지장암 주지 선혜 스님,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도성 스님은 "불교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여수 보문복지회 대표이사 연규 스님 취임

7월 5일 이·취임법회 봉행
연규 스님, 기금·쌀 전달해



사단법인 보문복지회 제2대 대표이사에 취임한 향일암 주지 연규 스님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여수 지역 최대 복지재단이자 불교 복지의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보문복지회 제2대 대표이사에 향일암 주지 연규 스님이 취임했다.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대표 연규)는 7월 5일 여수시노인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대표이사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1대 대표이사 진옥 스님(석천사 주지)과 제2대 대표이사 연규 스님(향일암 주지)을 비롯해 우석 스님(화엄사 부주지), 효광 스님(용문사 주지), 담연 스님(은적사 주지), 혜욱 스님(한산사 주지), 정환 스님(홍선사 회주), 해덕 스님(보문복지회 이사) 등 지역 사암스님과 정기명 여수시장,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 임채욱 여수시사회복지협의회장, 김대환 여수시사회복지사협회장, 위재춘 여수불교사암연합회 신도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대표이사로 취임한 연규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18년 동안 여수지역 사회복지계의 버팀목이자 선각자이셨던 진옥 스님께 감사드린다"며 "자비심으로 복지시설과 종사자들을 살피고,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옥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40년 전 여수와 인연을 맺으면서 경전읽기, 환경운동, 복지사업 등 3가지 수행을 서원했다"며 "앞으로 보문복지회는 교구본사인 화엄사 법인으로 본·말사가 힘을 모아 지역불교와 여수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는 2005년 여수, 순천, 구례지역에서 12개의 복지기관을 직영 및 수탁하고 있으며, 450여 명의 종사자들이 불교복지를 펼치고 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우석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보문복지회는 초대 대표이사 진옥 스님의 확고한 열정과 헌신이 뒷받침되었기에 여수 최고의 사회복지법인이 됐다"며 "새롭게 대표이사를 맞이한 보문복지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초심을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복지활동에 정성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 연규 스님은 진옥 스님의 공적에 대한 감사패와 염주, 꽃다발을 증정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법인발전기금 2000만원·자비나눔 쌀 1000kg을 보문복지회에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안 쌍봉사 시각장애인 경로행사 후원

7월 12일 행사서 진안군 공동 점심식사, 문화공연 등 제공해



진안 쌍봉사가 진안지역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경로문화행사를 진안군과 함께 후원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와 쌍봉사 섬김봉사단은 7월 12일 진안군(군수 전춘성)과 함께 진안군 시각장애인 경로문화행사를 후원했다.〈사진〉

진안군 전통문화전시관에서 열린 진안군 시각장애인 경로문화행사는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진안군지회(회장 김춘심)가 주최했으며, 시각장애인 120여 명이 참석했다.

쌍봉사 섬김봉사단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심 식사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쌍봉사 보경 스님은 장기자랑 상품과 경품을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시각장애인들은 진안군과 쌍봉사에서 준비한 점심 식사 후 장기자랑, 초청가수의 공연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모든 장애인들에게 애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유독 시각장애인들에게 더욱 마음이 쓰인다" 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시각장애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해 후원해주신 쌍봉사 보경 스님과 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배철완	T 053-985-9190	H 010-6780-919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문화사업단	구광국	T 02-2004-8213	H 010-3048-4008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